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제3기 주부교양강좌 실시

6월 5 ~ 2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복지관 지하 2층에서
간접 전도 방식의 복음화 확산 작업 일환

전 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 지도장경철 목사)는 제3기 주부교양강좌를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충현복지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해의 1, 2기에 이어 실시되는 주부교양강좌는 성도들이 자기 주변의 안 믿는 사람들을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해 오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문화를 접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에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부담없이 교회 문화에 접해 보게 하는 간접 전도의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제기되면서 교회를 개방하여 안 믿는 이웃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강좌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초빙하여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지난 해의 1, 2기 때에도 매 강좌 때마다 복지관 지하 2층을 가득 메운 가운데 흥미롭게 진행되었고 이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경우가 200여명이나 되었다. 목표로 했던 간접 전도의 효과를 보았고 또한 이 일로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독교계나 사회의 인식도 좋아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열린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주부교양강좌가 기독교 주간 신문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제3기 강좌도 일반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부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여성상에 대한 주제로 정했다.

강좌 일정 및 강사는 아래와 같다.

일자	강좌명	강사
6월 5일	갈동 해소 방안	이기연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6월 12일	새살버튼 여든까지의 교육	송자 박사(전 연세대 총장)
6월 19일	즐거움을 통한 건강 비결	황수관 교수(연세대 의대 교수)
6월 26일	21세기 여성상	김진홍 목사(두레마을 대표)



이기연 교수



송자 박사



황수관 교수



김진홍 목사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성료

총회장 김준규 목사의 설교,
최훈, 박종순 목사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에서 드려졌다.

예배에 앞서 김창인 목사의 전 가족이 모인 가운데 선교관 만나홀에서 만찬회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열렸다.

예종탁 목사(예장총회 서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위광필 목사(예성총회장)의 기도, 장정탁 목사(동서울노회장)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 김준규 총회장(예장 합동 총회)의 설교, 윤영탁 목사(협동목사)의 약력 소개, 총회, 노회, 교회의 예물 증정, 기념 책자《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증정, 최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와 박종순 목사(예장 통합총회장)의 축사, 김창인 목사의 답사, 김 목사 가족의 특송과 인사, 지원상 목사(루터교 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창인 목사는 답사에서 “중3 때 폐병을 앓았던 내가 80세까지 건강히 살며 직분을 감당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통일의 날이 올 때까지 건강을 유지해 세례받았던 평북 의주 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평양, 신의주, 원산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싶다”고 벅찬 감회를 피력했다.

인사말에서 당회 서기 김은호 장로는 김창인 목사 성역 60주년 기념 사업

으로 충현소석장학재단 설립, 수양관과 성지연구소 건립 등을 발표했다. (사진/기념 감사예배시 김창인 목사 가족들의 특별찬양 모습)

기도원,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설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6일 (월) 저녁부터 30일 (금) 새벽까지 기념 부흥사경회를 실시한다. 강사는 대구 복일교회의 담임목사인 윤희주 목사(사진)이다. 이번 부흥사경회에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함께 은혜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김성관 목사 청빙을 위한 서명 날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는 오늘 중으로 서명 날인하여 본당 로비에 마련되어 있는 성경통신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지난 5월 11일 공동의회 후 교구별로 서명 날인한 사람도 다시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선민 유다의 부패

(이사야 1:1-4)

1. 이사야서 서론(1:1)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 중의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기록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에서 695년까지 5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시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시대의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평민에게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에게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므낫세 왕이 등극했는데, 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을 책망하다가 그에게 잡혀 툇으로 허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손에 순교를 당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으리만큼 탁월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용기가 충천하여 겁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누구 앞에서나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한 용감한 종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의의 사람입니다. 불의한 물질이나 세력에 물든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지킨 선지자입니다.

2. 선민 유다의 부패(1:2-4)

(1) 천지를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선민이 부패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첫번째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겠는데 오히려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다" 하며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할 수 없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이 너희가 증인이 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2) 배은망덕하여 반역자가 되기까지 선민이 부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 반역자 밖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생겨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7-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원수들이 손을 못 대는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 나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최고로 호화스러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 안의 벽이 전부 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여섯 층계를 올라가서 솔로몬의 의자가 있으며 올라가는 층계마다 좌우에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에 사자들을 조각했습니다. 이 사자 12마리를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의자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궁궐에서 쓰는 그릇들을 보면 은그릇은 천시하여 금그릇만 쓸 만큼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자기가 잘 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솔로몬이 받아 누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궁궐을 지은 후에 그 생활이 호화롭게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교만이 생겼고, 또한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음란에 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첩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사방에 귀신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 왕은 첩들이 귀신당 짓는 것을 엄히 금하지 못하고 내버려둠으로써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의 영광과 음란과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택하여 그들을 키우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복입니다. 솔로몬이 잘 살게 될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영광과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짐승만 못한 인간이란 책망을 듣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 좋은 집에 살게 했더니 내가 잘 나서 그렇게 된 줄로 잘못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명심하여 순종해야 하겠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세상 영화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다가 마침내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3) 짐승만도 못한 정도로 선민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탄식하시게까지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내가 아들 딸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좋은 집에서 잘 살도록 최고의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과 세상의 더러운 영화를 따라가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악마에게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인생의 욕심은 돼지보다 더 많고, 잔인하기는 이리보다 더 사납고, 미련하기는 곰보다 더하고, 독하기는 독사보다 더하고, 음란하기는 개보다도 더하고, 거역하기는 염소 새끼보다 더하고, 교만하기는 공작보다 더하고, 더럽기는 구더기보다 더하고, 연약하기는 지렁이보다 더 하나 악마에게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인간들은 짐승만 못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 한 톨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면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영적 장인이 되고 맙니다. 범죄하면 신령한 귀가 막혀서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이리하여 인생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마와 가까워졌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간부

를 따라가듯 불쌍한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파괴자 악마와는 가까이 하고, 구주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하겠다고 청구서를 내고 있으니 불쌍한 백성입니다.

(4) 선민은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범죄한 나라라는 말은 범죄한 지도자들이고 허물진 백성이란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지도자는 악독하고 백성은 어리석으니 다함께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악마와 더불어 죄악 중에서 춤을 추며 좋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저버렸으니 제 발로 고생의 구렁텅이에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모르는 인생들은 짐승만 못합니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복받을 길은 차버리고 멸망의 길로 숨차게 달려가고 있으니 불쌍하고 슬픈 백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돼지보다 욕심이 더하지 아니한가? 내가 개보다 음란한 마음을 더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곰보다도 더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지 아니한가?' 자신을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잘 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복입니다. 솔로몬이 잘 살게 될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영광과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짐승만 못한 인간이란 책망을 듣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지원처 군 부대를 방문하고 나서 ◇

구원 초청 후 천국잔치 벌이며 기쁨을 함께 나눠

이혜자

(집사, 12교구, 에스더전도회)

군 부대를 방문기로 한 전날 밤부터 설레이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반짝거리는 한강을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10차선 자유로의 아침을 달리고 있었다.

집을 나선 시각은 이른 아침 7시 10분, 토요일이라 무척이나 밀릴 것을 예상하고 교회 본당 앞에서의 9시 30분 약속에 늦을세라 일찍 집을 나섰던 것이다.

시원한 아침공기와 한적한 한강변 아름다운 강물결. 그날의 이루어질 모든 행사를 위해 혼자 중얼중얼 주님을 향한 기도로 새 힘이 솟고 행복하기 그지 없었다. 긴 잠수고를 건너 교회 앞뜰에 이르니 의외로 뿔뿔민 교통이 1시간만에 도착하는 기적을 보였다.

웬일인가 벌써 루디아중창단원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늘 행사의 찬양의 주인공들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게 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찬양을 앞세워 30사단 92여단 지원처를 방문하러 했기 때문이다.

우리 12교구는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이어서 12명의 에스더 회원들은 구파발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김천재 교구 장로님의 출발기도를 마친 후 충현교회 버스는 버스 전용도로를 살며시 타고 어느새 북한산성 쪽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구파발 전철역에 이르렀다. 아! 반가워라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기다리던 전도회원 12명을 태우고 군부대에 도착하였다.

전형준 교구 목사님, 그리고 김옥운 전도사님을 대동한 우리 에스더전도회원 그리고 루디아중창단원은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탱크, 장갑차, 전차, 각종 총, 포, 등등에 대하여 진실로 우리 국방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



랑할 수 있다는 고성능의 장비 등을 시범과 아울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여단장계선 바로 하나님의 종 장로님이셨다. 어쩐지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몸에 배어 있었다. 우

리 에스더전도회 일행은 여단장 장로님의 해설과 신기하고 장엄한 장비를 둘러보면서 기뻐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노라며 우리 교회 금요찬양을 자랑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장비는 낙후된 북한의 무기보다 월등히 고성능이기에 두려울 것 없다는 장로님의 시원한 음성으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다.

봄바람에 흠날리며 기념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우리의 아들들의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날의 메뉴는 짜장면, 찐 감자 2개, 찐지무침, 삶은 계란, 군부대에 속한 승리교회 여전도회원들의 김치 솜씨를 곁들여 장병들과 감사함으로 맛있게 함께 나누고 주변의 아름다운 푸른 5월에 마음을 실어 임동혁 군복님이 담임하시는 승리교회로 내려왔다.

임 목사님은 실로암, 임마누엘, 온통교회 등 네 곳을 돌아보고 계셨다. 두 분의 군종님의 기타와 전자오르간에 맞춰 즐겁고 뜨거운 준비 찬양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150여명의 장병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예배는 시작되었고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와 에스더 회장의 성구 암송과 루디아중창단의 메들리로 엮어진 아름다운 찬양은 젊고 씩씩한 장병들에게 신선한 믿음의 도전을 주었다. 전형준 목사님의 안락한 소파의 비유(마 11:28)와 자동차 열쇠의 비유(요 14:6)를 통한 진하고 감동어린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결단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나! 훈련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드리는 예배이기에 졸음을 이기려 애쓰는 장병들도 보였지만 군 목회의 경계를 살리신 목사님의 말씀과 결단하는 순간에는 벌떡 일어나 함께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격의 장면이었다.

그때 우리는 어미된 마음으로 사랑스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끝으로 목사님의 거룩한 축도는 더욱 힘있고 봄바람 속에 승리교회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떡볶이 파티가 벌어졌다. 예배 후에 준비해 가지고 간 떡과 양념을 넣어 맛있게 만든 150명분의 떡볶이와 음료수, 과일, 다과로 구원받은 장병들과 함께 천국잔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뿐이라.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여단장 장로님께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드렸을까? 바로 그들이 필요한 탈수기, 선풍기, 머리깎이, 다리미, 운동기구 등을 전달하면서 우리 에스더전도회원과 후원해 주신 군전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어느새 정오의 해가 서산을 향해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다. 우리 위문단은 짧은 시간 주 안에서의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충현교회 버스는 정원같은 푸른 부대 언덕을 스르르 미끄러지고 차창밖에는 손끝이 안보이도록 흔들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아주소서. 한낱의 지나간 그림자를 마음 속에 그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의 입가에 벌써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있었다. 할렐루야!

◆ 가정의 달 오월에 부치는 글 ◆

아버지

멀리 바라보고 사셨지만, 항상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지친 몸으로 들어오셨지만, 주저앉지 않으셨다.

속는다 할지라도, 속이지 않으셨다.

아끼며 사셨지만, 인색하지 않으셨다.

겸손하셨지만, 비굴하지 않으셨다.

당당하셨지만, 오만하지 않으셨다.

우유부단해 보일 만큼 신중하셨지만, 내리신 결정은 거두지 않으셨다.

때로는 넘어지셨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법을 아셨다.

열심히 뛰셨지만, 의식하는 지혜를 잊지 않으셨다.

따뜻하게 말씀은 못하셔도, 어머니의 정성을 항상 고마워하셨다.

항상 쉬고 싶어하셨지만, 어머니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셨다.

사랑한다는 말씀은 멋적어하셨지만, 함께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잊지 않으셨다.

결혼기념일에 선물은 못해줘도, 항상 어머니편에 서셨다.

아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은 못해줘도,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

칭찬하기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아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수 있으셨다.

갈수록 붙어가는 당신의 허리보다, 비쩍 마른 아들의 허리를 더 안쓰러워하셨다.

마음껏 선택하게 하셨지만, 또한 책임지게끔 하셨다.

당신께서는 항상 외로워하셨지만, 언제나 아들 곁에서 계셨다.

잘못을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회개하는 아들과 함께 울어주셨다.

지친 아들을 격려하셨고, 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줄 아셨다.

실망하셨어도, 질책하지 않으셨다.

흔들림이 없었지만, 온유하셨고 엄하셨지만,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사랑하셨지만, 단호하셨다.

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었고, 멋진 인생의 선배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늘 회개하는 죄인으로 엎드리셨다.

햇빛을 누리는 법보다는 폭풍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셨고,

넓은 길을 걷기보다는 좁은 길 걷기를 권하셨고,

때문은 왕관보다 피물은 십자가를 더 사랑하라 하셨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들은 당신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양윤경(대학부)

◀ 군에서 온 편지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3중대 훈련병 204번 최승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여기 와서 4주를 어떻게 버틸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보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때면 점점 평안을 얻게 되고, 무엇인지 모를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 세례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시간이고 앞으로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군 생활, 사회 생활을 갖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크나큰 힘이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보다 큰 믿음도 없을 것 같은 나약한 저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행복했고 뜻깊은 시간만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에게도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들어올 훈련병과 현역 군인들에게 더욱 많은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7년 4월

믿음을 얻은 훈련병 올림

취재수첩

선교보고 및 선교사와의 대화

지난 주일 4부예배 후에 김창인 목사의 성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귀국한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만남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단기선교활동을 촬영한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성도들의 질문과 선교사의 답변이 있었다. 질문은 크게 선교사의 훈련과 자세, 문화 적응의 어려움, 건강과 영적 문제의 관리, 인간관계, 자녀교육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참석한 성도들은 선교사의 어려움과 그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인도네시아-서만수, 독일-육호기, 이집트-이준교, 이스라엘-김주경, 수리남-안석렬, 홍콩-김은태, 수단-김영대 선교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충헌가족이 되길 바란다.



▶ 소년부에서는 오늘 예배 후 친구들을 초청하여 소년부 음악회를 연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교회에서는 토요일과 주일 새벽 기도회의 반주자를 구한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성도는 사무

국 김차철 집사(구내 402)에게 문의하면 된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베다니홀에서 교사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황성철 교수(충신대학원 교수)이고 교육심리학 및 상담학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가족부 교사뿐 아니라 관심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남녀전도회 회원을 위한 영성훈련

5월 25일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전도위원회는 남녀전도회에 보다 활력을 주고 전도회 본연의 임무인 전도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남녀전도회 회원을 위한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영성훈련은 오늘(5월 25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갈릴리홀에서 박형용 목사(협동목사, 장년1부 지도)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하게 된다.

대상은 남녀전도회 임원 및 관심있는 회원들로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통해 전도 사명을 일깨우고 복음전파와 교회의 부흥에 헌신과 열심을 다짐케 하려고 하고 있다.

(글/ 박주영 기자, 사진/ 이운구 기자)

단기선교를 위한 교육이 금주부터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선교관 406호에서 열립니다. 해당자는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97 충헌 젊은이와 함께

목표 2000-주수금작전

5월 31일(토) 오후 3시/문화 행사

현대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과 대응

관심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

행사 요약 비디오, 행사 마무리를 위한 정리의 시간도

한달 동안 진행되었던 대학, 청년부의 연합 행사가 이달 31일(토)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

헌신예배로 시작하여 세미나, 체육대회, 명동 총동원 전도(사진), 알뜰이시장, 일일차집, 전시회 등의 행사가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가운데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달 동안 주수금작전을 벌여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새벽기도회, 금요일집회 등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힘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남아 있다.

이제 마지막 행사는 5월 31일(토) 문화 행사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 현대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과 대응이라는 주제하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화보기, 현대 기독교 음악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독교인의 바른 놀이 문화 등 관심있는 7개 영역을 설정하여 각 개인이 관심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이 시간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와 진행 사항들과 지난 행사들을 살펴 보고 간증하며 지난 행사들을 비디오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된다.

그리고 대학 청년 연합 찬양팀의 인

도로 감사와 찬양의 축제였던 1개월의 대학, 청년들의 모든 연합 행사를 끝맺게 된다.

그동안 성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이들의 행사에 큰 힘이 되었다. 성도들의 기증품으로 운영되었던 알뜰이시장에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물품들을 기증해 주어서 풍성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이 그 중 하나이며 여기저기서 찬조, 후원, 격려의 금품들이 이어졌다.



만남 사람 / 교육가족상 및 공로상을 수상한 이인상 장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 가정의 목표

자녀 다섯과 사위, 며느리 등 9명이 교편 생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를 KBS TV에서 한 시간 가량 생방송했다. 그날 전가족 9명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일을 소개하며 그 대표로 이인상 장로님(우리 교회 시무장로, 광문고등학교 교장)이 교육가족상 및 공로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이인상 장로님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상의 성격과 받으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 제16회 스승의 날이자 제45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부, 한국교육자총연합회, KBS가 연합으로 행사를 벌이며 주는 상이었습니다.

저는 3남2녀를 두었는데 이들이 지금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배화여고, 둘째아들은 한영고교, 셋째아들은 장충고교, 큰딸은 대원중학교, 둘째딸은 장안중학교에서 교사로 있습니다. 또한 막내며느리가 덕소고교에서 교사로, 큰사위는 호서대학 교수, 작

은 사위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고교 교사로, 경찰대학,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다가 지난 1985년부터 광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안의 가족 중 직계로서만 9명이 교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어서 상을 받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상을 받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함께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직계가족으로 9명이 현역으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교육가족상 및 공로상은 교육계에서 공로가 지대하고 누가 보아도 그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교육계에서는 최고의 상이다. 단순히 한 가정에서 많은 교육자가 나와서 주는 상이 아니고

그동안의 공적을 살펴서 주는 귀한 상인 것이다.

이인상 장로님은 광문고등학교 교장으로 13년째 재직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기하여 이미 수상의 대상에 오르내렸었다. 학교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고 현재 42학급에 2120명의 학생과 교사 100명의 건실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 어떻게 그렇게 전 가족이 교육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쉽게 동의를 해 주었지요?

▷ 기독교 가정인 저희 가정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모로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모든 자녀들이 그 말을 따라 주었지요.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육'이 우리 가정의 표어였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런 큰 상을 받고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상을 놓고 일간신문과 교육 관련신문에서는 이 장로님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크게 다루어 잘 소개해 주었

다. 각 신문에 난 큰 제목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가족만 모여도 교무실", "교직 대물림에 뿌듯", "가족 교육경력 합치면 100년이 넘어", "5남매, 사위, 며느리 등 9명이 교편 생활", "하나같이 참된 교육을 실천하는 가정", "가족만으로 학교 꾸릴 수 있지요" 등등의 큰 제목을 찾을 수 있다.

이인상 장로님은 이번 상의 숨은 공로자로 부인 윤병인 권사님을 제일 먼저 꼽았다. 평생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다섯 자녀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키고 늘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자녀를 키워 준 윤 권사님께 감사의 말을 들렸다. 한꺼번에 세 자녀가 대학에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검소, 절약하며 잘 견뎌 주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초등부 부장으로, 전도위원회 직능전도부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 분가시키고 윤 권사님과 두 분만이 살고 있다. 토요일이면 다섯 자녀 중 한, 두 자녀가 반드시 집에 찾아온다고 한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 공동의 관심과 문제를 놓고 대화하며 함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

